

# 불서읽는 문화 함께 만들어요

최근 심각한 불황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불교출판, 그 해결책은 없을까?  
 불교계 출판 불황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책 안 읽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교계 출판사들은 지난 7월 2일 '불교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0월 불교출판문화협회를 발족하는 등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현 스님과 동국역경원 최철환 편

찬부장, 동국대 김호성 교수, 민족사 윤창화 대표 등이 주축이 된 불서읽기 모임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도 오는 10월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어 불교계의 '책 읽는 분위기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서를 읽고 토론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 더 다가서려는 니련선하원(주 지정운)의 불서읽기 모임과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의 모니터링 현장을 소개한다.



정운 스님의 지도로 매월 한번씩 열리는 '니련선하원 불서읽기 모임'.

### 니련선하원 '불서읽기 모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立秋)인 8월 7일, 이날 서울 개봉동 니련선하원(주지 정운)에는 불서를 읽으며 토크대위를 이끄려는 '불서읽기 모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불서읽기 모임'은 지난해 12월 정운 스님의 지도로 시작된 것으로, 12명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토론회를 열어 <티벳불교> <붓다 그 삶과 사상> <인도사원순례> 등 8권의 불서를 읽었다.

이 모임의 특징은 장년층 이상의 불자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 40여 년 간 공무원으로 재직할 장성호(60) 거사와 개인 사업을 하며 불교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박덕환(63) 거사, 모임의 '최고참' 안병덕(73) 보살 등 지긋한 나이의 불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토론과 대화 나누며 나를 돌아봅니다"

참가자들은 <금강경> 독송에 이어 한 달 간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부터 묻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한다. 이날 토론회를 위한 <밀라레빠>, 박 거사가 준비해온 발제문을 읽고 난 후 회원들이 각각의 소감을 발표하자 본격적인 주제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쟁점이 된 문제는 '복수와 악업' 그리고 '스님의 부와 수행'에 관한 문제다. 짧지 않은 삶을 살아온 이들답게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는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복수는 또 다른 업을 쌓는다는 것을 알지만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이 끝나자 정운 스님은 다음 달에 읽을 책을 선정하고 모임을 정리했다.

안병덕 보살은 "늙어서 그런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 앉아 다른 사람들 얘기 듣는 것이 좋아 계속 참석하고 있다"고 말한다. 장성호 거사는 "나이가 들수록 책을 읽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다"며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정된 책 한 권씩을 품어 안고 사람 문을 나서는 회원들의 눈에 새로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간다. (02)2685-2396



초보불자를 위한 책임기모임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10월 정식 운영에 앞서 8월 15일 모임을 가졌다.

###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모니터 모임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궁금하신 분,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고 싶은 분은 누구든 환영합니다. 함께 불서를 읽으며 공부해 봅시다."

8월 15일,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제각각인 불자 18명이 조계사불교대학에 모였다. 바로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초보불자들을 위한 책임기 모임인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의 모니터 요원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독서 취향과 독서 수준, 모임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모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첫 대면의 어색함을 깨고 민족사 윤창화 대표가 모임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난 후, 참가자들의 각자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장년퇴직 후 비영리재단 '아름다운가게'와 참여연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맹행일(62) 거사는 "앞으로 책도 열심히 읽고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도록 노력하겠다"며 모임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내비쳐 다른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회원들이 한 달 동안 읽을 책인 <선방일기> <무소유> <붓다 그 삶과 사상> <번뇌 업 고통>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회원들은 선정된 책의 성격에 따라 한 명씩 소리 내 읽고 의견을 나누거나 책을 읽고 온 후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임을 진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한 시간 정도 회원들은 <선방일기>를 번갈아 읽으며 책에 대한 느낌을 나누었다. 방부를 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버려진 배춧잎을 뒤적이며 먹을 만한 것을 골라내는 조실 스님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 나는 점은 서로 묻고 답하며 궁금증을 푸느라 약속된 2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이날 모임이 끝났다.

조계사 청년회원인 박정선(28) 씨는 "불서를 읽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됐다"며 "회원들의 참여열기도 높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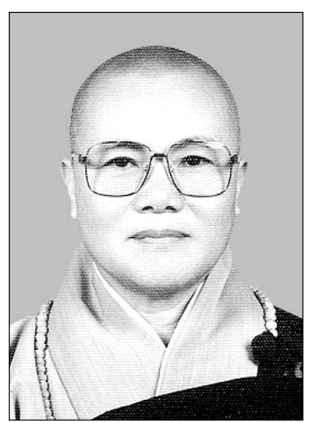
회원들의 열정적인 독서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이들이 참례한 불교계의 '책읽기 붐'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02)722-7679

여성 기자 snoopy@buddhapia.com

## 한국의 비구니 스님 <21> 성법 스님

### 케임브리지대 박사... 영·중·일어 능통

"남한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승병의 본거지로 많은 스님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역사적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내 위치한 망월사 주지 성법 스님은 잃어버린 남한산성 불교역사 찾기를 인생에서의 마지막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서에 이렇듯 전해지고 있던 망월사를 80년대 초반부터 20여년 동안 복원했고 불자들에게 남한산성이 호국불교의 산실임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192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성법 스님은 퇴계 이황 선생의 15대 손녀로 할아버지가 이조 말병조판서를 지낸 유학자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차례로 겪으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1953년 강원도 오

일 이사로 있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도 20년 이상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일본, 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와 불교문화교류 행사를 직접 개최하는 등 문화 포교사 역할도 특출히 하고 있다. 스님은 세계불교도우의회 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인도 수상인 디라 간디로부터 부처님 정골 사

### '불보살의 본적' 등 20여권 집필·편역 남한산성 불교역사 찾기로 여성 회향

대산 월정사 지장암에서 본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월정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55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58년 직지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한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이 수행자의 근본이라고 생각해 유학을 결심, 중국 문화대학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 대만 등지에서 공부에 매진한 스님은 1997년 영국 명문대 케임브리지대학 종교사학박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케임브리지대학 명사특에 이듬해 등재될 정도로 학문적 업적을 펴고 있는 스님은 <불보살의 본적>, <한국불교약사> 등 20여권의 책을 직접 집필 또는 편역했다.

오랜 유학 생활로 영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한 스님은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전방가로 유명하다. 경제적 빈곤으로 해외 포교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1972년 스님은 국제 포교사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고, 현재 상

리 3과를 기증받아 망월사에 봉안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최근 스님은 그동안 집필한 저서들이 한문이 많아 한글로 대가 읽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워 일일이 한문을 한글로 풀어쓰고 주석을 다는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력이 생긴다면 청년불자 수련연구원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수행자가 계율을 알게 되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스님, 80에 가까운 세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침예불, 참선 등 수행자의 본분을 올곧게 지키고 있고 손에 항상 책을 끼고 다니신다. 스님의 모습은 마치 게으른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경책을 하는 듯하다.

김두서 기자 doobi@buddhapia.com



## 한국불교 태고종 제17세 종정 혜초 대종사 추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17세 종정 혜초(慧草) 대종사의 종정 추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4년 9월 6일(월) (음 7월 22일) 오전 11시

※오전 10시 30분부터 종조 및 역대종정·선조사 스님의 다례를 봉행합니다.

☞ 장 소 : 신촌 봉원사

☞ 연락처 : 총무원 (02-382-7361), 봉원사 (02-392-3008)

한국불교태고종 제 17세 종정 추대법회 봉행위원장  
 한국 불 교 태 고 종 총 무 원 장

이 운 산